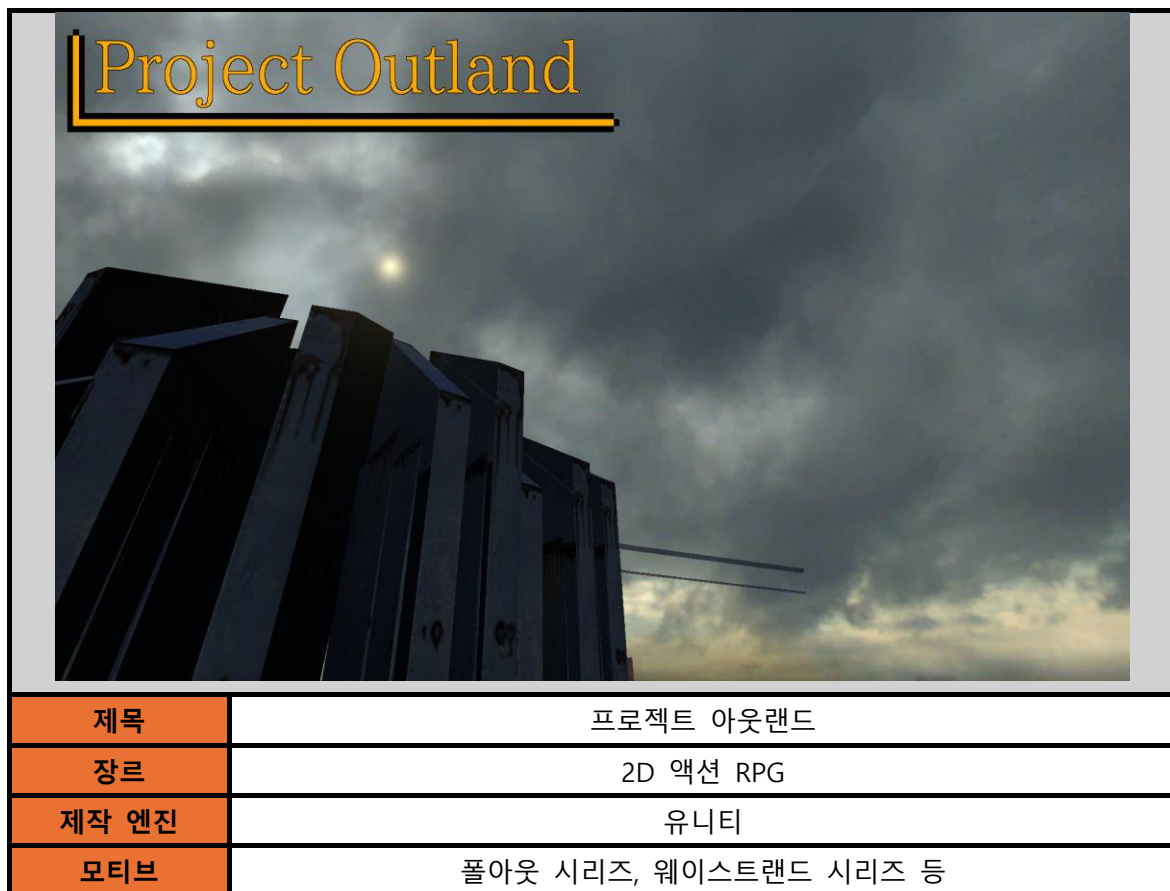


프로젝트 아웃랜드 설정 문서



주제)

인류의 다음 세대 존속을 위해 당신은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배경 스토리)

2177년, 제3차 세계대전이 세상을 휩쓸었다. 2180년에는 대부분의 국가가 공멸하여 전쟁을 더는 수행할 수 없어 종전이 되었다. 전후 미국의 뉴욕 주에서 살아남은 지식인과 기술자들이 모여 '센트럴 스퀘어'를 건설하고 그곳으로 전쟁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이 모여 하나의 공동체를 형성했다. 시간이 흘러, 스퀘어의 규모가 커지면서 점차 식량과 물부족, 인구과잉 등의 문제가 생기자 스퀘어의 과학자 대표 '에이드리언 모데우스'가 '프로젝트 뉴먼'을 제안한다. 그것은 인류의 종족보전 프로젝트로 각 분야에 재능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들을 집중 관리하고 판단 기준에 부합하지 못한 사람들은 추방시켜 당장의 인구과잉으로 인한 문제를 해결하면서 시간을 벌자는 것이다. 그러면서 인구 문제의 해결책을 찾고 이후 세대로 이어지는 지식과 기술을 발전시키는 장기 프로젝트이다. 스퀘어 대표들의 회의 결과, 해당 프로젝트의 발안 계획이 통과되었고 통과 당시 20세 이상, 60세 미만의 사람들 중 프로젝트에 적합하지 않은 사람들을 대거 방출하였다. 방출된 사람들은 아웃랜드를 떠돌면서 다른 공동체를 만들거나 서로 죽거나 죽이는, 황무지 생존의 법칙을 따

랐다.

이후 시간이 흘러, 2208년에 주인공이 20세가 되는 날 그/그녀는 '방출대상자'가 되어 스퀘어로부터 추방당하는데.....

프롤로그 스토리)

스퀘어의 입구, 우연하게도 그 날의 유일한 방출대상자가 된 주인공은 추방 전 스퀘어 입구에서 경비원이자 친구 '튜튼'에게 바깥 세계에서야 생존 수칙과 요령을 배우고 기초적인 장비만 지급받은 체(경비들의 말로는 이것이 스퀘어의 마지막 배려라면서)추방당한다. 추방직전 튜튼이 '샌들리'라는 마을이 정착하기 좋은 곳이라며 튜튼의 친구 '쿨 카터'를 찾아 자기 이름을 대면 정착을 도와줄것이라고 말해 이것으로 첫 메인퀘스트가 시작된다. 스퀘어 입구 및 베카로 가면서 기초적인 조작법과 배경설정 등을 알 수 있다.

게임 배경 설정)

프로젝트 뉴먼)

스퀘어의 과학자 대표 '에이드리언 모데우스'가 인류의 세대보전을 위해 발안한 프로젝트. 시간이 흘러 스퀘어의 인구가 많아지고 식량과 물부족, 인구 과잉으로 인한 거주문제 등이 대두되자 재능있는 사람들을 남겨놓고 부합하지 못한 사람들은 추방시켜 당장의 인구로 인한 문제를 해결한다는 프로젝트다. 특정 분야에 재능이 있는 사람들은 스퀘어에서 관리하면서 다음 세대로 기술과 지식을 이어가는 삶을 살게 되고 추방된 사람들은 바깥 세상에서 알아서 살면서 나중에 문제들이 해결되면 다시 받아들인다는 골자로 시작했지만 프로젝트가 시작한지 17년이 지나도록 스퀘어는 개방되지 않아 점점 외부에서 힘을 키운 세력들이 노리는 원인이 된다. 사실 추방자들에게 지급한 스마트 디바이스에 지형기록장치 등을 숨겨놓아 바깥 상황을 확인하고 문명공동체의 존재여부, 자생가능한 환경지 등을 찾기위함도 있었다.

에이드리언 모데우스)

스퀘어의 과학기술부 대표. 50대로 추정되는 남성으로 그가 발안한 프로젝트 뉴먼에 의해 많은 사람들이 스퀘어에서 추방되어 아웃랜드에선 그를 증오하는 인물들이 많다. 인류의 존속을 위해 여러 방법들을 연구하고 있으나 폐쇄성이 짙은 사회를 가진 스퀘어의 한계로 큰 성과는 얻지 못하고 있다. 어쩔 수 없이 프로젝트 뉴먼을 고안했으며 사람들을 추방시키는 것이 옳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는 등 근본적으로 선한 사람이나 대의를 위해 여러 프로젝트를 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선택으로 인해 적도 많이 만들게 되어 완전 선한 인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화폐(금속)

세계가 멸망한 후 각 국가별로 통용되던 화폐들은 모두 가치를 잃어 새로운 대체화폐로 금속류가 주목받게 된다. 아웃랜더들은 거래할 때 서로 가진 금속을 교환하며 금속은 양, 질에 따라 가치가 매겨진다. 금속의 질이 좋으면 고가치를 지니게 되는데 보통은 거래하는 사람끼리 눈대중, 저울질, 만져보기 등으로 그때마다 판단하여 측정한다. 이런 판단은 주관적이어서 가끔씩 거래가 파토나기도 하지만 일종의 암묵적인 룰로 취급받아 지금까지에선 뉴욕 전체에 통용되고 있다. 거래 자체는 일종의 물물교환 시스템으로 변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금이나 은, 은화, 동전 등도 금속류로 쳐서 거래에 쓸 수 있다. 금속이 화폐로 쓰인 이유로는 철 자체가 쓰임새가 많고 위조의 개념이 없어(어차피 금속은 형태가 각각 다르고 양과 질로 판단하므로)쓰였다는 풍문이 있다.

스퀘어 디바이스)

스퀘어에서 시민들의 상태체크 및 시민간 연락을 위해 만든 장치. 사각형 스마트폰같이 생겼으며 이것으로 다른 사람과 연락하거나 자신의 상태를 점검할 수 있다. 또한 로컬맵 기능도 있다. 게임에선 자신이 가진 장비와 스킬 등을 확인할 수도 있다. 펌보이와 같은 역할이다.

방출대상자들에게 기존 디바이스를 걷고 '스퀘어 디바이스 2.0'을 주는데 별 차이 없는 것 같지만 사실 2.0에는 숨겨진 지형기록장치와 데이터 수집 기능이 있다. 사용자 몰래 바깥세상에 대한 정보를 스퀘어로 전송한다. 이것으로 인해 스퀘어에서 아웃랜드에 대한 정보를 수집한다. 설정 상 아이템 창 및 능력치 확인 등을 전부 스마트폰 화면으로 하는 설정이다.

C.A.R.E)

Care Assisted Recognition Everything. 주인공의 스마트폰에 깔려있는 앱. 기본으로 설치되어 있는 앱으로 전쟁 전에는 일상생활에 도움을 주는 앱이었으나 스쿼어에서 재프로그래밍하여 자신의 상태를 체크해주는 앱으로 바뀌었다. 상태 체크 외에도 의료정보, 백과사전 등 여러 기능이 있어 유용하게 쓰인다.

아웃랜드)

스쿼어에서 바깥세상을 부르는 말. 원래 스쿼어에서만 쓰이는 말이었지만 아웃랜드에 추방자들이 많아지면서 뉴욕 전체를 아웃랜드라고 부른다. 폴아웃 시리즈의 황무지(웨이스트랜드)처럼 해당 지역을 부르는 말이다.

아웃랜더)

스쿼어에서 스쿼어 외부 사람들을 부르는 이름. 폴아웃 시리즈의 폐품업자, 레이더, 황무지인 등을 총칭한다.

아웃사이드즈)

스쿼어에서 추방된 사람들이 세운 단체. 리더는 '블론 갈'이다. 과격파 단체로 스쿼어의 추방정책에 불만을 품어 세력을 키워 스쿼어를 전복시키려고 한다. 다른 공동체와 반목하는 사이여서 별로 좋은 소리를 듣지는 못한다. 퀘스트를 통해 플레이어가 스쿼어를 전복시키기로 결정했다면 이들의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며 아니면 주인공이 아웃사이드즈를 쓸어버릴 수도 있다.

네이션즈)

스쿼어에서 추방된 사람들이 세운 단체. 리더는 일본계 미국인인 '이시다 아야'다. 그는 자신이 순수 미국인이 아니어서 인종차별로 인해 추방되었다고 믿고 같은 유색인종들을 모아 네이션즈를 만들었다. 아웃사이드즈가 스쿼어의 전복을 꾸미고 있는 것과 반대로 온건적인 성향이어서 스쿼어의 영향에서 아예 벗어나려고 한다. 퀘스트를 통해 2가지 결말을 맞이하는데, 1. 맨하튼에서 벗어나 단원들의 고향으로 엑소더스를 떠난다. / 2. 차별받는 사람들을 위한 네이션즈만의 거대 공동체를 만든다.

생존연합(SN)

뉴욕 곳곳에서 활동하고 있는 생존자 집단. 2203년에 '헝크 카자리안'이 창설했다. 망해버린 세상에서 살아남기 위한 각종 수칙을 알려주거나 물자들을 수집하면서 생존을 도모하는 집단이다. 연합이라지만 하나의 거대한 공동체를 이루지 않고 뉴욕 전 지역에 흩어져서 그룹 형식의 소규모 집단을 형성하고 있다. 헝크는 거대 공동체 형성은 내부 분열을 일으킬 수 있고 전국 각지에 흩어지면 영향력 확대 및 한쪽 그룹이 박살나도 다른 그룹이 있어 생존에 유리하다는 이유로 이런 식으로 활동하기로 결정했다고 한다. 뉴욕 곳곳에서 이들을 볼 수 있으며 보통 2~4인조로 활동한다. 이들과 간단한 거래를 하거나 소문이나 주변 지역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헝크 카자리안)

'생존연합'을 창설한 인물. 생존을 위해 사람도 많이 죽여본적이 있고 아무도 믿지 않는 극렬한 생존주의자이다. 아웃랜드를 떠돌아 다니다가 우연히 파괴된 유엔본부를 발견하여 그곳에서 과거 유엔의 상징들과 모토를 알게된 그는 생존을 위해서는 사람들이 뭉쳐야 한다고 느껴 생존연합을 창설하게 된다.

뉴욕 스쿼드)

전쟁 당시 뉴욕 각지에 흩어져 고립되어 있던 미군들을 수습하여 재결성한 부대. 퀸즈에 위치한 '포트 퀸즈'역(또는 공항)에 주둔하고 있다. 결성 당시에는 1개 소대 규모였으나 지금은 본대보다 조금 많은 정도로 축소되었다. 뉴욕에 있는 군사시설이나 위험한 장비들을 찾아 사람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처리하고 있었다가 '콘체르토 군사기지'에서 나오는 로봇들에 대항하기 위해 포트 퀸즈에 정착했다. 구 미군의 잔재답게 군사기술력이나 장비 등을 갖추고 있으나 인력이 없고 폴아웃의 브라더후드처럼 기지를 발견한 것이 아니어서 미래가 밝지는 않다.

맨디스 대위)

뉴욕 스쿼드의 대장이자 전쟁 전 미 육군 소속 장교였던 인물. 전쟁이 발발하자 뉴욕으로 쳐들어온 적들에 용감하게 맞서 싸운 용장으로 불린다. 전쟁 당시에는 뺏속까지 군인이었던 인물로 전시에 탈영하거나 적전도주한 병사를 처형하는 극단적인 모습까지 보여주면서 부대를 지휘했으나 전쟁 말 ICBM과 핵병기 등 대량살상무기로 전쟁이 끝나버려 자신이 한 지휘는 아무런 의미도 없음을 깨달았다. 전시에 벙커로 도주하거나 사리는 등 차라리 부대원을 더 살리는게 낫지 않았을까 하는 죄책감에 시달린 그는 남은 부대원들을 이끌고 '뉴욕 스쿼드'라는 이름으로 부대를 재편하고 아웃랜드에 위협이 되는 군사시설들을 제거하고 사람들을 돕기로 한다.

도 중사)

뉴욕 스쿼드의 간부. 원래는 미군 소속이 아니었으나 스쿼드의 활동에 많은 도움을 준 아웃랜더여서 맨디스가 영입하였다. 밀리터리 매니아로서 구 미군을 동경하고 있으며 지금은 맨디스의 명령에 따라 콘체르토 군사기지의 정찰임무를 맡고 있다.

콘체르토 군사기지)

뉴욕 북서부 뉴저지'의 최북단에 위치한 군사기지. 전쟁이 발발하자 뉴욕에 대량살상병기(ICBM, 핵 등)로부터의 공격을 막기 위해 원래 있던 방송국을 기지로 개조했다. 전쟁 때 뉴욕을 공격한 몇 개의 대량살상병기들을 제거하는 등 역할을 다 하였으나 지금은 무인 로봇들이 돌아다니면서 보이는 모든 것을 쏘죽이는 무인기지처럼 변해버렸다.

AER구역)

뉴욕 어딘가에 위치한 군사시설이 있는 지역. 전쟁전후로 많은 병사들이 오가고 기지의 설비도 잘 갖춰져있는 전략적 요충지였으나 전쟁도중 폭격을 맞아 파괴되었다. 지금은 폐품업자나 떠돌이들이 쓸만한 물건을 얻으려고 왔다가 죽은 채로 발견되거나 사라져버리는 이상한 장소로 알려져 있다. 사실 이곳은 미국이 비밀리에 지하시설 '로고스 연구소'를 만들어놓은 지역으로 설비가

잘 갖춰진 군사기지는 위장에 불과했다. 전쟁에서 가장 먼저 파괴되도록 유도한 뒤 적들이 신경을 쓰지 않게 하기 위해 일부러 이렇게 만들었다.

로고스 연구소)

미국이 뉴욕의 AER지역 지하에 숨겨놓은 연구소. 철저히 비밀에 부쳐졌기에 정부의 고위인사 일부만이 이 시설의 존재를 알고 있었다. 로고스 연구소는 전쟁에서 일반 병사보다 육체적, 정신적으로 우월한 초인병사 '엘리트 솔저'를 양성하기 위해 지어졌다. 그들은 태생부터 각종 약물, 교육, 훈련을 받고 자라며 이 과정에서 통각과 감정을 절제하는 방법을 익히고 초인에 걸맞는 반사신경을 얻게 된다. 전쟁 전에 전쟁이 발발할 것을 예측한 미국의 과학자들이 세워 미국 내에서도 손에 꼽히는 기술력과 과학력이 집약된 연구소라 할 수 있다.

엘리트 솔저)

'로고스 연구소'에서 만들어진 퍼펙트 솔저. 관계자들은 보통 'ES'라고 부르며 이들은 인공적으로 탄생하여 태어날때 부터 약물, 교육, 훈련을 받고 자란다. ES들은 특수 배양액에서 자라 어린 시절에서 성인으로 성장할때 까지 1~2년 정도 밖에 안걸리며 그 과정에서 기계를 통해 무의식적으로 필요한 것들을 학습하게 된다. ES의 장점은 초인병사에 걸맞는 육체적, 정신적 능력으로 고통을 느끼지 않고 정신력도 미국에 절대 충성하여 어떤 고문에도 입을 열지 않고 바로 자결하는 정도이다. 반사신경과 후각, 시각 등도 뛰어나 어떤 ES는 단독으로 한 전투에서 소대 하나를 몰살시켰다는 믿지 못할 소문까지 들릴 정도이다. 또한 이들은 생물학적 부모도 없어 군 관계자들이 아무런 죄의식 없이 바로 최전선에 투입시키거나 무모한 작전을 진행시킬 수 있어 전투 승리에 크게 기여했다. 하지만 결국 핵전쟁으로 인해 이들마저도 대부분 죽었으며 어떻게 살아남은 ES들은 미국이 입력해놓은 '만약 미국이 멸망했을경우 미국을 재건할 다른 지도자가 나타날때 까지 살아남아라'는 지침을 따라 아웃랜드에서 살아남기 위해 행동하고 있다. ES는 절대복종을 위해 통제 키워드를 심어놓게 되는데 특수한 키워드를 ES에게 말하면 그것을 들은 ES는 그 사람의 명령을 절대적으로 따른다거나 의식을 잃고 쓰러지는 등 ES를 통제할 수 있다.

해럴드 대령)

현 '로고스 연구소'의 관리자이자 ES를 통솔하는 인물. 뛰어난 지능을 가지고 있는데 연구소를 혼자서 관리할 정도다. 그의 목적은 ES를 이용하여 로고스 연구소 주변의 돌연변이들과 방해물들을 청소하는 것으로 주기적으로 ES를 만들어 내보내고 있다.

사실 그는 이름처럼 전령의 역할에 불과한 존재이며 '와이즈'라는 존재의 명령을 받아 행동하고 있었다.

MSG)

'메디슨 스퀘어 가든'. 전쟁 전에는 여러 스포츠에서 쓰이는 경기장이었으나 전쟁 이후 방치되었다. 비교적 보존이 잘 된 건물이다.

파괴된 마천루)

맨하튼 중심에 있는 파괴된 마천루의 잔해. 원래는 당연히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으로 전쟁 당

시 뉴욕에서 가장 먼저 폭격을 맞은 곳 중 하나라 한다.

데드랜드)

‘브루클린’ 남쪽에 위치한 지역. 3차 세계대전 당시 핵공격을 맞아 지역 전체가 방사능에 오염된 지역이다. 남쪽 바다는 방사능에 오염되어 수질이 매우 좋지 않고 폐허가 된 지역도 잔여 방사능이 남아 있다. 사람들이 거의 살지 않아 데드랜드라고 불리우며 이곳에서는 인간을 거의 찾아볼 수 없고 방사능에 오염된 생물들이 가득하다.

게임 시스템)

능력치)

HP: 기본 100+(레벨x5)+스킬+아이템 등

TP: 기본 60+(레벨x5)+스킬+아이템 등

방어력: 방어력 만큼 고정수치를 대미지에서 빼는 방식. 스킬이나 아이템으로 %비율로 대미지를 감소시키는 방어력도 얻을 수 있다.

대미지: 총기 대미지+사거리 보정+스킬 아이템 등-방어력+스킬 아이템 등. 방어력이 아주 높더라도 받는 대미지의 10%는 최소치로 무조건 입는다.

스킬트리)

3가지 큰 분류(힘, 지식, 테크닉)이 있고 각 분류에 하위분류에 스킬들이 있다. 스킬은 한번만 찍을 수 있는 것도 있고 일정 레벨까지 투자할 수 있는 스킬도 있다. 일부 스킬은 선행조건(선행 스킬, 요구레벨 등)이 있다. 레벨업 시 스킬포인트를 3 얻으며 각 분류에 하나씩 투자할 수도 있고 한 분야에 3개를 다 몰아서 투자할 수도 있다.

힘)

캐릭터의 근력에 관련된 능력치로 소지무게 증가, 근접공격 강화, 체력 및 방어력 증가 등이 있다.

예시)

등짐: 소지 무게가 티어 당 5 증가(최대 5).

주먹질: 격투(언암드, 건틀릿, 비무장) 공격력이 5 증가(최대 3).

지식)

캐릭터의 지능 및 대화에 관련된 능력치. NPC와 거래시 흥정효과, 제조법 습득 및 효율증가, 화술 증가, 무기 개조 강화 등이 있다.

예시)

굿맨: NPC와 대화 시 설득, 흥정 등의 체크 성공률을 높임.

의학: 회복 아이템(식품 제외)의 회복량이 레벨당 10% 증가(최대 3).

테크닉)

캐릭터의 민첩성과 감각에 관련된 능력치. 원거리 공격 강화, 이동속도 증가, 불릿타임 강화, 은신 강화 등이 있다.

예시)

복식호흡: 레벨 당 최대 TP 5 증가(최대 5).

총기전문가: 총기의 공격력이 10% 증가(최대 3).

Bullet-Time Accelerate Time System: 불릿타임 시 자신이 느려지는 속도가 25% 감소, 반응성 회

피: 피격 시 3% 확률로 적의 공격을 회피(최대 3).

신속한 호흡: TP 재생률이 5% 증가(최대 5).

동료)

동료는 1명만 데리고 다닐 수 있다. 동료는 체력이 다하면 죽지 않고 20초간 기절한다. 쓰러진 동료에게 다가가서 치료를 선택하면 2초 후 바로 일어난다. 동료는 AI를 가지고 전투를 도와주며 동료에게 말을 걸어 전투방식을 바꾸거나 짐 옮기기, 동료의 장비 교체 등을 할 수 있다.

전투방식은 '근거리 위주', '원거리 위주'가 있으며 자신과의 거리도 '가깝게', '적당히', '멀리 떨어져'로 설정할 수 있다.

동료마다 특수능력이 있으며 패시브스킬 하나와 액티브스킬하나가 있다. 스킬은 쿨타임이 있을 수 있으며 일부 동료는 구성이 다를 수 있다.

동료는 플레이어의 레벨을 따라 성장하며 레벨당 1의 동료전용 스킬포인트를 얻는다. 동료의 공격력/방어/체력/공격속도/이동속도 등의 능력치를 올릴 수 있고 동료마다 특수한 스킬(ex-빅터(제압술): 빅터의 공격이 적의 방어력을 20% 무시합니다.)을 찍을 수도 있다.

빅터 맥클라렌)

각종 동물을 사냥하거나 현상금 수배자들을 사냥하는 사냥꾼. 가죽 자켓에 머플러를 두르고 있으며 주무기는 리볼버. 서부 애리조나에서 왔으며 사막에서 사냥꾼 일을 하다 질려 이곳으로 왔다고 한다. 리볼버를 능숙하게 다룰 수 있어 속사로 적을 제압할 수 있다.

특수능력-집중포화(P): 대화로 빅터의 공격에 변화를 줄 수 있다. 적의 다리: 공격력 20% 감소, 적의 다리를 공격해 2초 동안 적의 이동속도를 30% 감소시킨다.

적의 머리: 공격속도 30% 감소, 공격력 10% 증가, 치명타 보정+15%, 명중률 20% 감소.

적의 손: 공격력 20% 감소, 적의 손(또는 화기)를 공격해 대상이 주는 피해를 25% 감소시킴.

레너드 로얄)

자주 어리숙한 행동을 보이는 의사. 원래 시타델 출신으로 의학에 뛰어난 재능을 가지고 있었으나 지능테스트에서 낮은 점수를 받아 추방당했다. 전투 시 약물을 주사해 버프를 주거나 체력을 회복시켜주는 등 유틸리티 특화 동료다.

특수능력-자연치유(P): 레너드 본인의 HP를 1초당 3씩 회복한다. 레너드와 플레이어의 아이템 회복량이 20%증가한다.

버프 인젝션(A): 레너드가 플레이어에게 약물을 주사해 10초 동안 효과를 부여한다.

근력강화: 공격력이 25% 증가한다.

신진대사 강화: 공격속도가 20%, 이동속도가 10% 증가한다.

골격강화: 방어력이 30% 증가한다.

응급처치: 최대 HP를 50% 즉시 회복한다.

기타 시스템)

은신)

왼쪽 Ctrl로 앉기가 가능하다. 은신 시 이동속도가 33%가 되고 화기의 산탄도가 감소한다. 은신

(초록)-경계(주황)-발각(빨)로 표시되는 신호등 시스템이다. 은신상태에서 공격시 크리티컬 확률이 증가하며 은신 시 이속, 크리티컬 대미지 등은 짝은 스킬에 따라 증가시킬 수도 있다. 공격에 맞은 적에게는 무조건 발각상태가 되어 은신이 풀리지만 한방에 죽었으면 주위에 있는 적이 경계상태가 된다.

은신에 영향을 주는 요소: 무기 소음, 적의 시야범위, 낮밤여부, 발걸음소리(입은 장비에 따라 다름), 은신관련스킬 등

구르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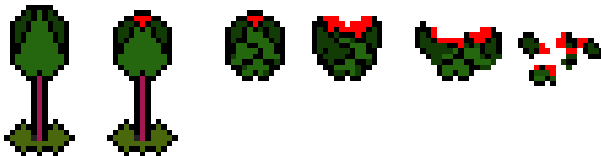
TP를 소비하여 짧은 거리를 구를 수 있다. 구르는 동안에는 받는 피해를 반감시킨다. 스킬에 따라 구르면서 충전, 구르는 동안 받는피해 더 감소 등 부가효과가 있다.

블릿타임)

Q버튼으로 발동하는 시간감속시스템이다. 기본 8초 동안 유지되며 아이템이나 스킬로 지속시간 증가나 처치시 회복 등의 효과도 받을 수 있다. 플레이어 포함 생물들의 전체적인 속도(이속, 체력회복, TP재생 등)가 반감되고 투사체(화기 총알 포함)의 속도는 플레이어 25% / 적 75% 감소한다.

적 목록)

샌드웜			
			
공격력	5	공격속도	1/초
체력	20	방어력	0
이동속도	2	감지 범위	3.5
드랍 아이템	금속(소), 응급밴드, .40구경 탄환, .308구경 탄환		
설명			
<p>사막화로 인해 생겨난 거대화한 지렁이같은 벌레.</p> <p>전설속의 생물 ‘몽골리안 데스웜’과 비슷하게 생겼다.</p> <p>머리 부분에 가시돌기가 나 있으며 머리 가운데 작은 입으로 사냥감을 잘게 갉아먹는다.</p> <p>크기는 보통 소형견 정도의 크기지만 어미개체는 성체돼지수준의 크기를 자랑한다.</p>			

쑈			
			
공격력(가시)	4	공격속도	1/초
체력	25	방어력	0
이동속도	-	감지 범위	6
드랍 아이템	금속(소), 응급밴드, VIT-A 드링크, .40구경 탄환		
설명			
<p>아웃랜드에서 종종 볼 수 있는 식물.</p> <p>식충식물 '네펜데스'가 방사능 및 기타 요인에 의해 돌연변이를 일으켜 탄생했다.</p> <p>몸집이 커져 곤충 외에 작은 포유류나 설치류도 잡아먹을 수 있으며 사람도 포식 대상이다.</p> <p>먹이를 발견하면 멀리서 가시를 발사하거나 독액을 뿌려 대상을 제압한다.</p> <p>아웃랜드를 돌아다니는 어린 아이들이 종종 희생되는 경우가 있다.</p>			

스캐도르			
			
공격력	8	공격속도	1/초
체력	15	방어력	0
이동속도	3	감지 범위	7
드랍 아이템	금속(소), VIT-Aドリンク, .40구경 탄환		
설명			
<p>멸망 이후 아웃랜드에 출몰하고 있는 대머리수리.</p> <p>황무지에 시체가 즐비하기 때문에 개체수가 급증했다고 한다.</p> <p>빠른 속도로 대상에게 날아가 부리로 공격한다.</p>			

약탈자			
			
공격력	5(주먹) / 8(권총)	공격속도	1/초(주먹) / 2/초(권총)
체력	35	방어력	1
이동속도	3.5	감지 범위	8
드랍 아이템	금속(소~중), 응급밴드, VIT-A 드링크, .40구경 탄환		
설명			
<p>‘풀아웃 시리즈’의 ‘레이더’와 같은 존재들.</p> <p>종말 이후 황무지를 떠돌아다니면서 물자를 약탈하며 산다.</p>			

기타 적 목록)

떠돌이 견)

아웃랜드를 방황하는 주인 잃은 개들. 주인이 없어진 지금은 먹을게 없어 먹잇감을 사냥하며 만만한 인간들도 노리고 다니는 생태계 하위에 머무는 존재들이다.

가드봇)

전쟁전 상류층들이 주로 사용하던 집지킴이 로봇. 튼튼한 내구성과 힘을 가지고 있으며 무기도 있으나 법에 따라 만들어져 단발식 실탄화기와 팔에 달린 진압용 곤봉밖에 없다. 전쟁 후 일부 개체는 상인들이 시스템을 리부팅하여 자신들의 경호원으로 쓴다. 가끔 프로그램이 망가져 보이는 모든 것을 공격하는 개체도 있다.

패트로이드)

전쟁전 관공서, 경찰서 등 공공기관에서 치안유지를 위해 만들어진 경비용 로봇. 전쟁 전부터 강력범죄가 상당히 늘어나자 인력보조를 위해 많이 투입되었다. 연사형 실탄화기와 스텐건, 전기충격식 곤봉을 지니고 있다. 위의 가드봇과 마찬가지로 프로그램이 망가져 아무나 공격하는 개체도 있고 재프로그래밍해 다른 용도로 쓰이는 로봇도 있다.

메인 퀘스트 라인)

1. 낙원으로부터 추방)

스퀘어에서 추방당한 주인공은 추방직전 친구 '튜튼'의 조언대로 '샌들리'에 있는 '콜'을 찾으러 가게 된다. 샌들리에 도착한 주인공은 주민들에게서 정보를 얻어 콜의 집을 찾으나 문이 잠겨 있다. 문을 여는 여러 방법 1. 마을 주민들에게 정보를 얻어 콜이 숨겨놓은 비상열쇠를 집 근처에서 찾아 연다. 2. 힘으로 문을 부순다(힘 체크) 3. 집 뒷편 살짝 열려 있는 창문으로 들어간다(테크닉 체크)

여러 방법을 통해 집으로 들어갈 수 있다.

2. 내가 오기 전에 이미 죽어있었어!

집 안은 난장판이 되어있고 콜은 거실에서 죽은 채 쓰러져 있다. 콜의 주머니에서 얻은 쪽지("스퀘어로 돌아가고 싶단 말이지? 그럼 넌 이제 필요 없게 됐군.")를 보고 집을 수색하는데 콜의 책상에서 콜의 일기장("스퀘어에서 추방당했다. 나는 선택받은 시민이 되지 못했기에 이곳에 정착하기로 했다. 여기 사람들은 친절하고 샌들리는 생활하는데 필요한 물자들을 구할 수 있다. 스퀘어가 더 이상 그리지 않다." "3달이 지났다. 바깥세상에도 이런 공동체가 더 있지 않을까 싶어 주변을 탐험했다. 그러다 '생존연합'이라는 집단과 만나 거래도 하고 약탈자 무리를 만나서 고생하기도 했다. 그리고 군복처럼 보이는 옷을 입은 사람들이 로봇과 싸우는 것도 봤고 처음보는 생물들도 있었다. 한가지 확실한 건 다른 공동체도 어딘가에 있다는 것과 생각보단 아웃랜드는 살만한 곳이라는 것이다.")

"(일기가 찢어져 있음)" "스퀘어로 다시 돌아갈 방법을 알려고 베카로 갔지만 그들과 만난것은 큰 실수다. 이제 더 일기를 쓸 수 없을지도 모른..."

주인공은 일기를 통해 스퀘어로 들어갈 방법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콜을 죽인자들이 그것에 대해 알 것이라는 추측을 하는데 일기장을 열자마자 집으로 암살자 1명이 쳐들어와 싸우게되고 그를 죽이면 그의 시체에서 또 다른 정보를 얻는다.

"콜이 죽었는지 확인해라. 만약 그를 지원하는 자가 있으면 죽이고 복귀하라.-중위"

주인공은 우선 중위라는 자부터 찾기 위해 베카로 가게 된다.

3. 트라이베카)

베카 입구에서부터 불량배들에게 시비가 걸리게 되는데 죽이거나 설득을 하거나 돈을 주고 지나가게 된다. 베카로 진입하게되면 입구의 불량배와 같은 편인 다른 불량배들이 1. 입구의 불량배를 죽였을 경우-"밖에서 비명소리가 났는데... 너 이자식!"하면서 공격. 2. 설득 또는 돈을 줬을 경우-불량배들은 주민들에게 "알아들었지? 그럼 우린 간다."한 후 페이드 인 아웃 해서 사라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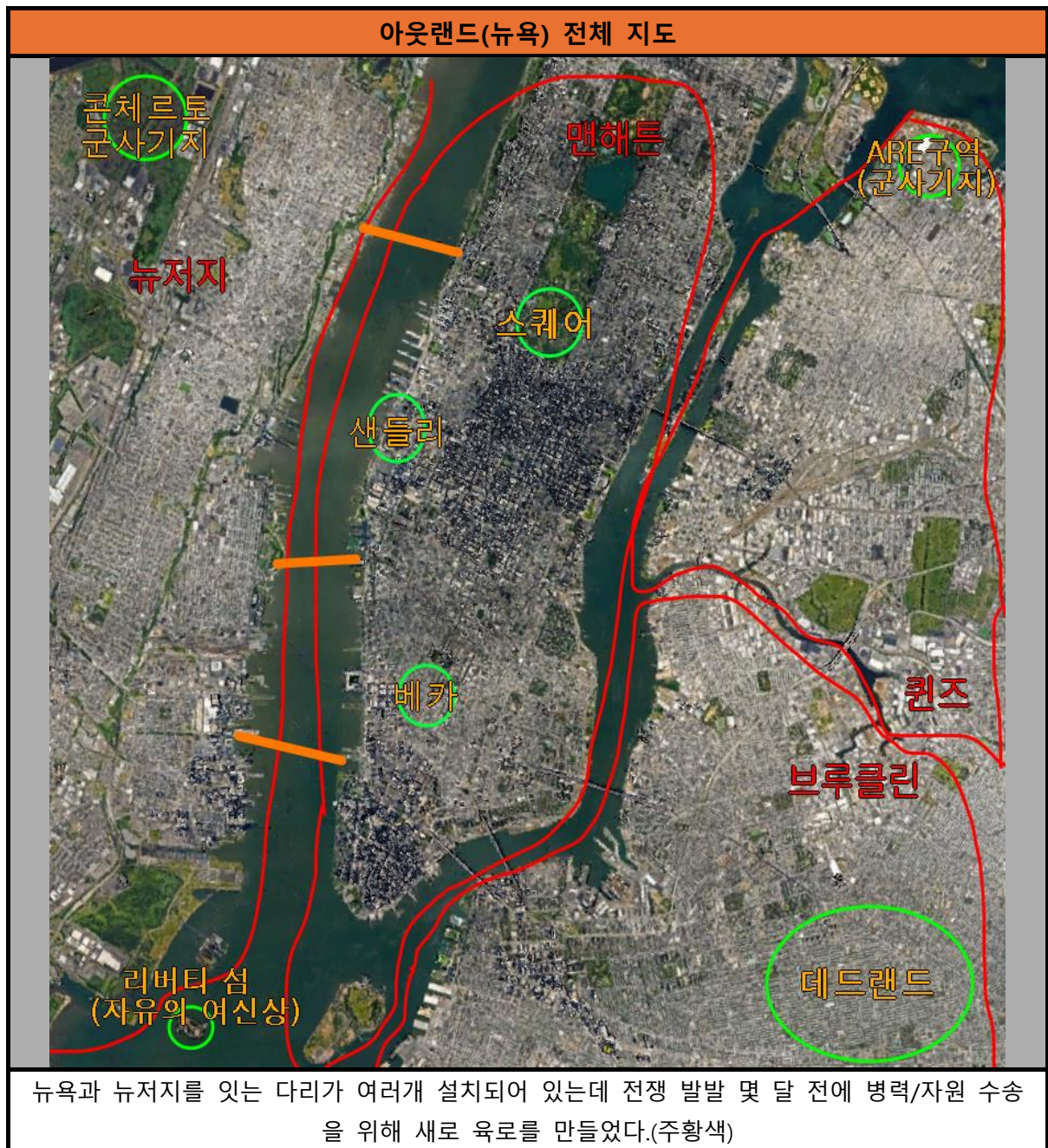
베카의 시장에게 말을 걸면 불량배 놈들이 자꾸 베카로 와서 상납금을 요구한다면서 불량배의 처리를 요구하는데 '중위'라는 자의 정보를 대가로 불량배를 처리하게 된다.

이후 스토리라인 구상안)

주인공은 스퀘어에서 추방당해 뉴욕 여러 지역을 돌아다니다 스퀘어의 식량, 물, 인구 문제 등을 해결할 방법을 알아내고 아웃랜드의 여러 문제를 해결하고 종반부에 스퀘어로 돌아가 1. 모데우

스 박사를 설득, 프로젝트 뉴먼의 방향을 수정하여 외부의 사람들이 오고가게 할 수 있게 한다. 2. 모데우스 박사의 대의(인류 세대의 보존)에 동참하여 스퀘어를 여전히 개방하지 않고 식량과 물문제, 기술발전 등의 해결책에 집중. 3. 스퀘어를 전복하여 수뇌부를 갈아엎어 대표들을 없애고 NCR 처럼 민주제 공화국으로 만든다. 이 과정에서 모데우스를 살려 문제해결에 도움을 주게 하거나 죽여서 구세대의 종말을 만들 수 있다. 4. 스퀘어의 원자로 아님 중앙장치를 폭발시켜 스퀘어를 자폭시킨다. 시타델에 보존된 기술들은 유실되지만 기술을 독점하는 세력이 사라져 모든 사람들이 평등하게 황무지의 삶을 이어가게 된다.

지역)



뉴욕)

전쟁 전 미국의 최대 도시. 전쟁 당시 대도시인 뉴욕은 핵공격의 대상이었지만 뉴욕 곳곳에 설치한 군사기지의 질량병기 방어체제로 인해 맨해튼과 근처 퀸즈, 브루클린 북부는 핵으로부터 무사했지만 일부 탄두가 브루클린 남부로 떨어져 남부는 '데드랜드'라는 방사능 무인지대가 되었다. 또한 현재는 주 경계선의 의미가 없기 때문에 아웃랜드 사람들은 뉴욕 서쪽 뉴저지의 일부까지 뉴욕 땅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센트럴 스퀘어

Project Outland



센트럴 스퀘어 전경. 게임의 메인 화면이기도 하다.

센트럴 스퀘어)

'맨해튼'의 '센트럴 파크' 북부에 위치한 거대한 도시. 세계가 망한 후 뉴욕 주에서 가장 크고 재건된 문명공동체로 평가받는다. 전쟁으로 인해 뉴욕도 초토화가 되었지만 뉴욕의 유일한 국립공원 센트럴 파크는 비교적 온전하게 남아있었고 스퀘어 창립 당시 식생이 어느정도 복구 가능한 센트럴 파크에 스퀘어를 짓게 되었다.



튜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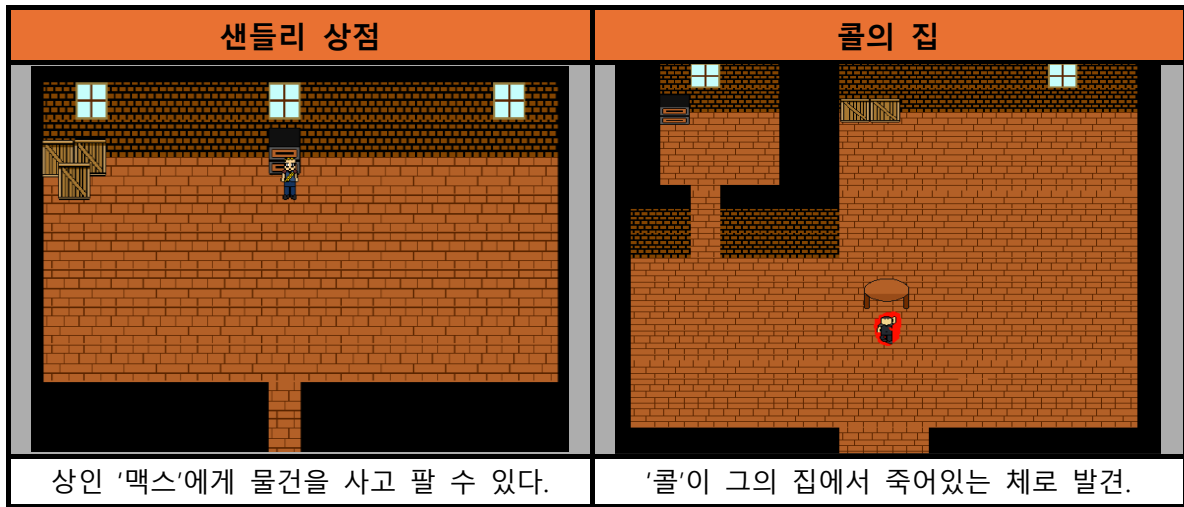
스퀘어의 경비이자 주인공의 친구. 스퀘어 정문 입구의 경비를 맡고 있다. 이름답게 튜토리얼을 담당해주며 세계에 대한 여러 정보를 알려주는 역할이다. '쿨'을 만나보라며 메인 퀘스트를 갱신해 준 후 스퀘어에서 나가게 되면 후반까지 볼 일이 없다.

사실 튜튼은 '아웃사이드즈'의 스파이로 주인공을 쿨에게 가라고 한 것도 주인공을 아웃사이드즈와 접촉시키게 하려 한 것. 하지만 쿨은 아웃사이드즈에 회의를 느껴 탈퇴하려다 죽었고 주인공은 아웃사이드즈와 접촉하지 못한 채 그들의 존재만 알게 된다.

극후반에 다시 스퀘어로 돌아갔을때 아웃사이드즈의 편을 들어 과격하게 스퀘어를 조지기로 했으면 튜튼이 문을 열어줘 정문에서부터 스퀘어의 병력을 조지게 되고 만약 온건한 방법으로 스퀘어를 바꾸려하면 튜튼이랑 대치하게 되는데 그는 과격파이긴 하지만 스퀘어를 바꾸려면 과격한 방법밖에 없다고 생각할 뿐 그 자신은 최소의 피해만으로 바꾸길 원해서 말로 설득하거나 퀘스트 수행을 통해 튜튼을 자신의 편으로 만들 수 있다.(실패시 싸워야 하거나 일단 무시한 후 나중에 추방시켜야함)



모래바람이 자주 부는 마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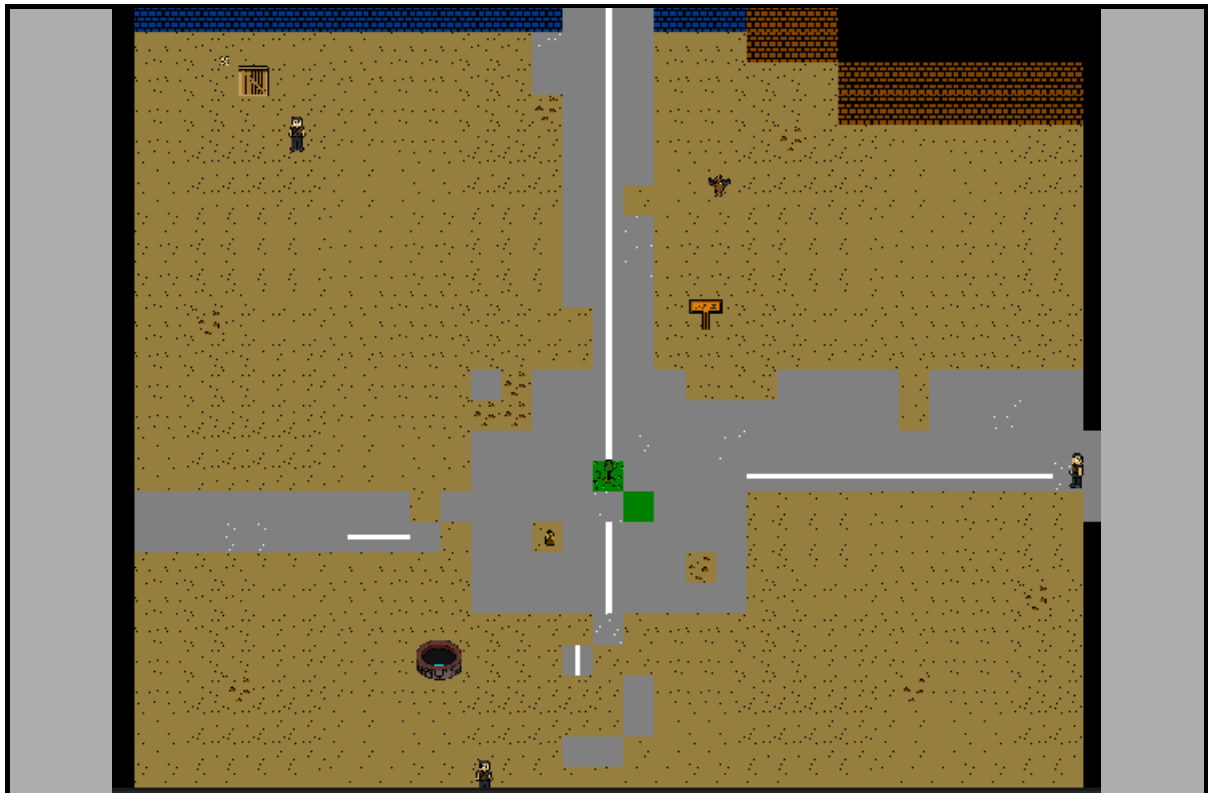


샌들리)

스퀘어로부터 남동쪽에 위치한 게임 초반에 들리게 되는 작은 마을. 원래는 계곡이었으나 전쟁으로 인해 지각변동과 식생의 파괴로 인해 사막화가 되었다. 전쟁 후 계곡 암반에 물이 흐르는 것을 발견한 사람들이 마을을 세웠다. 이름의 유래는 원래 'SandValley'라고 적힌 간판이 세월의 풍파 때문에 'V'가 날아가서 'Sand alley'가 되어서 그렇게 부르게 되었다. 모티브는 '폴아웃 뉴베가스'의 '노박'. 퀘스트 상 처음오게 되는 마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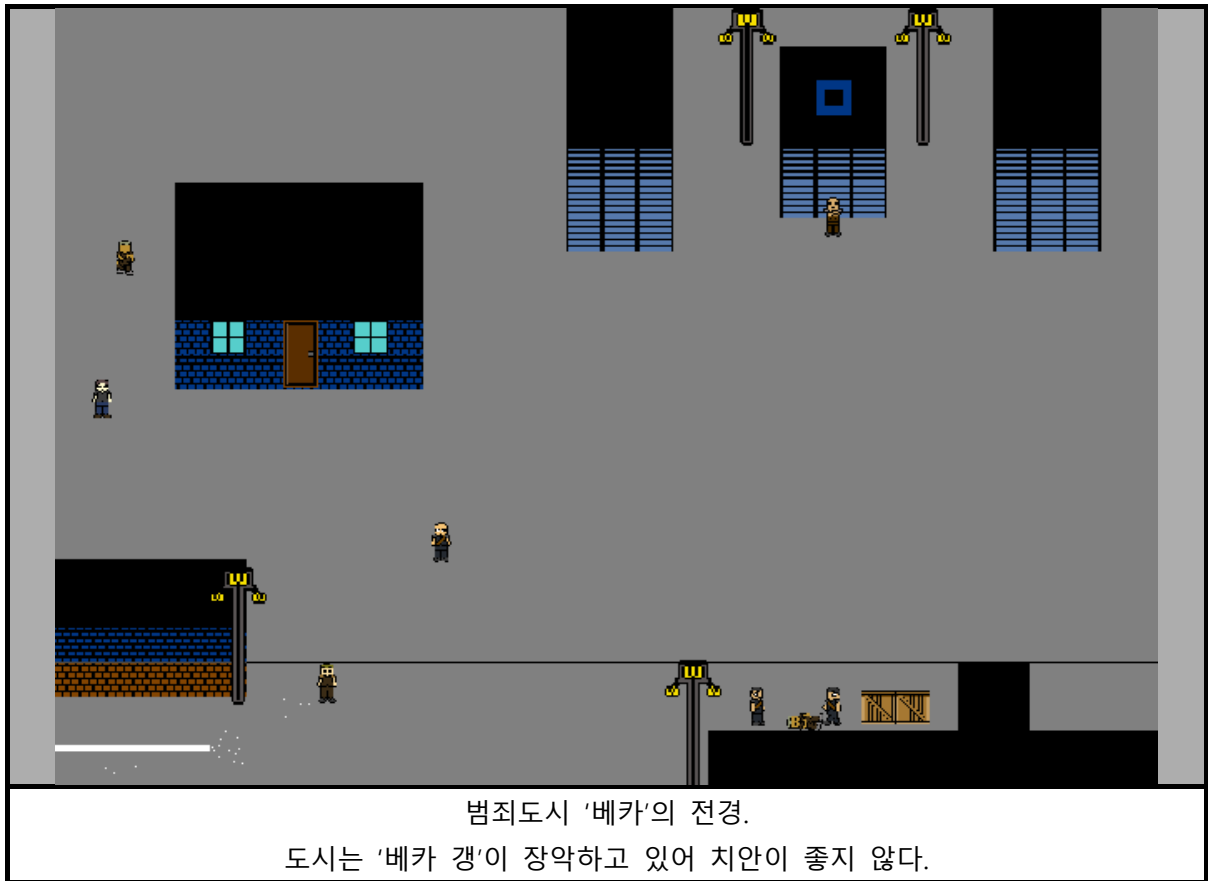
이곳에서 모래해안에 있는 '쑈'들을 처리하는 'Thorn of bitch'퀘스트를 받을 수 있다.

베카 외곽



'베카'로 가는 길에 있는 외곽 지역.
북측으로는 '샌들리', 우측으로는 베카로 가는 길이 있다.

베카



베카(BECA)

맨하튼 남서쪽에 있는 작은 마을. 원래는 '트라이베카'라는 부촌이었으나 전쟁 직전 대부분의 사람들이 도망가버려 무인촌이 되었다. 지금은 정착지가 되어 농사를 짓거나 오가는 상인들을 상대로 거래 및 상업활동을 한다. 현 시점에서는 불량배 집단(베카 갱)이 주기적으로 마을로 와서 상납금을 요구하는 상태로 베카의 시장 '메이슨'에게 메인퀘스트인 '중위'의 정보를 대가로 불량배 처리 의뢰를 받을 수 있다.